

로컬리더스

# 군산시, 규제개혁 종합 계획 추진

## 군산경찰서, 치안설명회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23일 군산 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안설명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과 4대사회악 근절 등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찰은 현재 추진중인 ▲4대 사회악 근절 ▲이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안전 및 범죄예방 ▲교통안전 선진화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군산경찰의 역점시책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시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에 이어 열린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군산=문정곤기자

##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단장 박종만)은 23일 금강하구둑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금강사업단 직원 및 군산시 그린환경감시T-128 등 약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조제 주변의 각종 쓰레기 약 500kg을 수거 처리했다.

금강사업단은 그린환경감시T-128 회원과 함께 매일 농업기반시설물 및 지역의 강, 하천주변지역에서 대한 환경정화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쳐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의식 제면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만 금강사업단장은 "군산지역 관광 명소인 금강하구둑, 어도체험장 및 공원 주변 등을 청결히 유지해 방문객들이 편안히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근대문화지구 가로환경 정비

군산시는 매주 금요일을 '근대문화도시 가로환경정비의 날'로 정하고 가로환경 일제정비를 단행한다.

근대문화지구는 한 해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와 전라북도민체전 등 대규모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원도심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환경정비를 통해 노상에 적치된 화분, 페타이어, 불통 등 생활쓰레기와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군산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공직사회 공감대 확산·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 담야

군산시는 전직원의 규제마인드 함양과 현장중심의 규제발굴을 통한 규제체감도 향상을 골자로 '2016년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재정비 ▲시민·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강화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지원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중점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를 비롯한 읍·면·동 전체에 생활불편규제신고센터가 신규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6급)을 지정해 규제 발굴에서부터 홍보, 개선 등의 생활규제 전담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매일 규제 발굴 동향보고를 통해 일일행정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규제발굴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집중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기업애로와 투자유치 중심의 제한적 규제 발굴 추진에 머물렀던 규제개선 업무가 해묵은 생활불편 규제 개혁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를 비롯한 읍·면·동 전체에 생활불편규제신고센터가 신규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6급)을 지정해 규제 발굴에서부터 홍보, 개선 등의 생활규제 전담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매일 규제 발굴 동향보고를 통해 일일행정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규제발굴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점진적인 조직점검과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의 조직점검을 실시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규제발굴단) 지정 운영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016년에는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중앙정부 및 전북도와 협력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먹는 물 모두 수질기준 '적합'

### 시내 수도꼭지 40개 · 간이급수시설 23개 · 저수조 262개소 검사 결과

군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상수도과 간이급수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안전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수질검사는 수도물의 경우 시내 수도꼭지 40개소에 대해 월 1회, 배수지 수질검사 18개소 분기 1회, 간이급수시설 23개소 분기 1회, 대형건축물 저수조 262개소 연 1회 검사를 실시했다.

먹는 물 수질검사 58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은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질산성질소 등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대장균 등 세균류 검사결과 불검출 되어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임이 판명됐다.

시는 수도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분청 및 음력동사무소, 사업소 등 모든 청사에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군산시 전청원이 '수돗물 그냥 마시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수질검사 과정에 대한 확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며 "수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소하여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를 위한 고객 행정 서비스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 원광대 뇌과학연구소-입학관리처 '세계 뇌 주간' 행사 개최

2016년 '세계 뇌 주간' 행사가 최근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원광대 뇌과학연구소(소장 이서율)와 입학관리처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 도내 16개 고등학교에서 총 8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세계 뇌 주간' 행사는 1996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 60여 개 국가에서 매년 3월 셋째 주에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곳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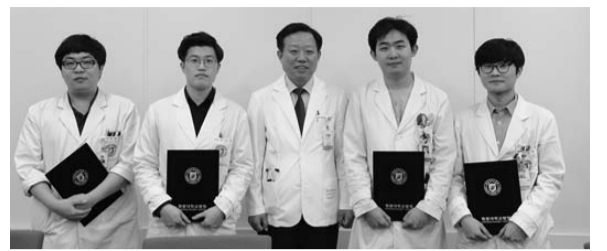
원광대 행사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원광대 의과대학 김민선 교수), ▲뇌질환치료원광대 의과대학 이학승 교수), ▲마음과 뇌(원광대 한의과



대학 김재호 교수), ▲학습과 기억(원광대 의과대학 이서율 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에 앞서 원광대 입

학관리처장 정현영 교수의 환영사와 2017학년도 전형안내를 비롯해 원광대를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익산=장양원기자



## 원광대병원,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 포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지난 22일 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지난 하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에 대한 상장과 부상 수여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하반기 포상을 받은 의사는 내과계 신경과 임인환, 재활의학과 이광민, 외과계 안과 김상연, 신경외과 김종원, 성형외과 김양석 등 5명이다.

의무기록 충실 작성의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환자수·재원일수 대비 퇴원 미비 기록 발생건수, 재원환자 미비 기록 발생 건수, 현재 미비 기록 건수, 미비 기록 발생 후 작성의 신속성 및 협조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원광대학교병원은 환자 질병과 치료 및 예후에 관한 환자 관련 의무기록들이 충실하게 기록되고 정리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의료정보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의무기록 충실 작성 여부 결과에 따라 년중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한다.

최두영 병원장은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의무기록은 환자 관리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싼 진료 일정 속에서도 의무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준 수상 의사들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 충남 경계지역 구제역 통제 초소 2곳 운영

익산시가 이달 10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이어 17일 논산시 노성면에서도 구제역 양성축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21일부터 충남 경계지역에서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충남지역의 축산관련차량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충남 경계지역에(망성←강경 2번 국도, 여산←운영해 구제역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 조치는 해제하고, 충남도내 위험시군(공주·천안·논산·홍성)의 돼지 반입금지·유지한다. 기타 시군은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전라북도내 자돈입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자돈입식금지를 위반해 충남지역 돼지를 입식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면무 1번 국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구제역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항 물동량 286만 5,000톤 처리 전년비 7% ↑

군산항 물동량이 286만5000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에 따르면 군산항은 16년도 2월말 현재 전년 대비 7% 증가한 286만5000톤의 물동량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화물 중 수출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59만9000톤, 수입은 13% 증가한 179만1000톤으로 수출입 화물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연안화물(유류, 모래, 시멘트 등)은 47만5000톤으로

14% 감소했다.

주요 수출화물인 자동차는 GM 차량이 전년수준(1% 8,493대)이나 환적차량 증가 등으로 기아 차량이 증가(101%, 1만7770대)해 대폭 증가(46%, 3만9943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화물인 시멘트류는 옥수수 가격 인하 등에 따라 소폭 증가(4%, 66만 9000톤)했고 컨테이너는 전년 대비 일시적으로 감소(-11%, 5,982TEU)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 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늬터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 (주) 코포스

##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mailto:see8709@naver.com)

###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박스 용량에 (500~1000ml)를 배수구로 넣고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배수구 청소**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